



즉시 배포용: 2017 년 10 월 6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도심 활성화 기획 두 번째 라운드 1,000 만 달러 수상자에 센트럴 뉴욕 지역 코틀랜드 시가 선정되었음을 발표

뉴욕주, 코틀랜드 도심 활성을 위해 센트럴 뉴욕 지역경제개발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와 협력

지역사회를 활기찬 인접 지역으로 변모시키고 지역 경제를 부양하려는 주지사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의 일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전략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하는 투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틀랜드 시가 도심 활성화 기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의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센트럴 뉴욕 지역 수상자로 선정되어 1,000 만 달러의 자금 지원과 투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DRI의 첫 번째 라운드와 같이, 뉴욕주 10 개 경제 개발 지역의 각 지자체가 1,000 만 달러 우승자로 선정되어, 커뮤니티가 지역 경제를 촉진할 촉매 도심 프로젝트를 가려낼 수 있도록 1 억 달러 자금 지원 및 투자를 실시하는 주정부의 또 다른 전반적 목표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우리 지역사회에 계속 투자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들을 유치하고 주 전역 도시의 사업 발전을 추진합니다. 이 보조금은 코틀랜드에 새로운 도심 생활을 가져오고 이 지역 경제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센트리 뉴욕 지역경제개발위원회는 지역 전체의 커뮤니티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8 가지 기준에 맞춰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 후 코틀랜드 시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해당 도시는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조밀한 규모여야 합니다.

- 지자체 또는 도심의 담당 관할 구역은 생기가 넘치며 일 년 내내 도심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알맞은 크기여야 합니다.
- 해당 도심은 인근 및 주변 지역에 대한 기존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활용하고 향후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들을 도심 지역으로 유인하고 재개발을 지원하며 성장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도심 지역 안이나 그 인접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 성장이 최근에 존재하거나 임박해야만 합니다.
- 해당 도심은 기존 주민, 밀레니얼 세대, 숙련된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다양한 인구를 위해 매력적이고 살기에 적합한 지역사회여야 합니다.
- 해당 지자체는 이미 지역 토지 은행, 현대적인 지역 코드 및 주차기준, 완전한 도로계획,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젝트, 친환경 일자리, 개발에 기반을 둔 대중교통 등의 사용을 포함하여 거주 가능성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만들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수용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해당 지자체는 도심 활성화 비전과 DRI 전략 투자 기획에 포함될 수 있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예비 목록을 작성하는 강력한 공공 커뮤니티 참여 절차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 해당 지자체는 DRI 지원금을 투입하여 최초 1년에서 2년 이내에 시행 준비가 될 개선 프로젝트를 파악하였습니다.

코틀랜드 시는 두 번째 라운드 DRI 우승자로서 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주정부 자금 및 투자금 1,000 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코틀랜드 시는 DRI 첫 번째 라운드 센트럴 뉴욕 지역 우승자인 오스위고 시와 함께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틀랜드 미래의 관건은 도심이 센트럴 뉴욕의 문화, 교육 및 경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도심에서 반마일 이내에 있는 450 개 가까이 사업체와 상업 중심에서 근무하는 5,000 명 이상 되는 직원들로 코틀랜드는 이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센트럴 뉴욕 부흥 전략을 추진하는 주요 도시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엠펙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Howard Zemsk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RI 은 코틀랜드의 경제 미래를 강화하고 도심 상업지역의 발전을 지지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민간 투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DRI 는 코틀랜드와 이 지역의 추진력을 강화하며 센트럴 뉴욕의 부흥을 이끌어 갑니다.”

Rossana Rosado 뉴욕주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심 활성화 기획 기금은 코틀랜드 시의 도심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존 주민을 유지하고 새로운 주민을 유치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것입니다.

주무부(Department of State)는 뉴욕주 전체의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주민구역 및 도심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의 RuthAnne Visnausk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도심 활성화 기획은 코틀랜드 시와 같은 도시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번영의 길로 인도합니다. 코틀랜드 시에 투자하는 이 1,000 만 달러의 보조금은 주거 기회 증가, 일자리 창출, 문화 및 휴양 기회 유치, 지역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뉴욕주 전역의 엄청난 자산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James L. Seward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 전체 지역의 경제 발전은 최근 몇 년 동안 Cuomo 주지사와 주 의회의 공동 노력 덕분에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주 정부의 투자에 대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틀랜드 시는 우리 지역 경제의 재기를 이끄는 선구자이며 도심 활성화 기획 보조금 수상은 이곳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과 그들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상은 코틀랜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투자로서 앞으로 지역 전체에 더 많은 사업체, 일자리와 훌륭한 기회들을 가져올 변화들이 발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Barbara Lift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틀랜드 도심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장을 보면서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1,000 만 달러의 이번 도심 활성화 보조금은 이런 성공을 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조금은 코틀랜드 도심을 엔터테인먼트, 예술 및 손님 환대의 활기찬 중심으로의 변화에 도움 주는 프로젝트 개발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도심 경제가 계속하여 온라인 소매업의 증가에 압박감을 느낌에 따라 의회 대다수가 코틀랜드와 같은 도심 경제에 대한 투자를 우선순위에 놓았습니다. 주 예산의 이번 보조금을 지지하게 되어서 기쁘며 뉴욕주 전체의 도심 활성화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코틀랜드 시장 Brian Tobi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틀랜드 시를 대표하여 이번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살려 커뮤니티 파트너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미 이룬 성과를 확장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경제발전위원회가 이룬 위대한 업적과 코틀랜드를 훌륭한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하여 노력한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내에서 대단한 리더십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걸출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지 작업을 인정하며 지지해주시고 우리가 작업을 원만히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Cuomo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코틀랜드

코틀랜드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의 햇불은 지난 10 년간 도심에서 5 마일 반경의 지역에서 5 억 3,500 만 달러의 새로운 투자로 지펴졌으며 추가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6 개월 이내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틀랜드의 도심은 상업 중심구의 핵심이며 SUNY 코틀랜드(SUNY Cortland)와 톰킨스 코틀랜드 커뮤니티대학(Tompkins Cortland Community College)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시 중심에서 반경 0.5 마일 이내 구역에는 근무 직원을 5,100 여 명 가진 450 개의 기업들이 이곳을 코틀랜드 카운티에서 가장 큰 인력 고용 구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코틀랜드 시는 센트럴 뉴욕과 핑커 레이크스로 모두 통하는 관문으로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카운티 주민들과 SUNY 코틀랜드 학생들이 이용하는 카운티 내 주요 쇼핑 구역으로서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에 지어진 상업 및 주거용 복합 건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상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부지는 새로운 개발로 도심의 변화가를 만들며 추가적인 경제 기회와 부동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틀랜드는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고 주민과 관광객 수를 늘릴 수 있는 추가 주택들에 대한 새로운 공간을 구상합니다. 시정부는 창의적인 경제의 확장, 완벽한 도심 주민구 건설 및 21 세기에 맞는 시설에 대한 재단장을 통하여 도심 재개발을 이끌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틀랜드는 1,000 만 달러의 DRI 지원금에서 최대 30 만 달러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기획(Strategic Investment Plan)을 수립하는 과정에 돌입할 것입니다. 지자체 대표, 커뮤니티 리더 및 기타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 기획위원회(Local Planning Committee)가 민간 부문 전문가 및 뉴욕주 기획 담당자 팀의 지원을 받아 계획 수립을 이끌 예정입니다. 코틀랜드 도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은 지역의 자산과 기회를 검토하고, 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비전에 부합하고 실행을 전제로 한 경제 개발, 교통, 주택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선별합니다. 코틀랜드 도심 전략 투자 계획은 지역사회의 도심 발전 비전을 실현하고, 뉴욕주 지원금 1,000 만 달러 투자로 확대할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DRI 보조금 투자 지침이 될 것입니다. DRI 두 번째 라운드 계획은 2018 년 초 완료될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 가속화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 지역의 종합 청사진인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 년부터 글로벌 시장 기회의 활용, 기업가 정신의 강화 및 포괄적 경제 창출 등 이 계획에 대한 준비 작업을 위해 이 지역에 약 47 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하고 투자하기 위한 근거지로 시러큐스, 오스위고 및 오번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Cuomo 주지사가 2015 년 12 월에 발표한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을 통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5 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센트럴 뉴욕 성장(Central NY Rising) 계획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5 억 달러 투자는 민간 사업체들이 25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5,900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ny.gov/programs/downtown-revitalization-initiative 를 방문해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